국기원 태권도연구, 2019, 제10권, 제4호, 109-127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2019, Vol. 10, No. 4, 109-127
http://dx.doi.org/10.24881/tjk.2019.10.4.109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지도유형과 스포츠 도덕행동의 구조적 관계

임태희(용인대학교 교수) · 이창민*(용인대학교 석사과정) ·
배준수(용인대학교 박사과정) · 양윤경(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이 연구는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선수들의 도덕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국 태권도 대회에 참여한 중학생 태권도 선수 242명이었다.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28명(남자=181, 여자=47)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선수의 동료 및 상대 반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선수의 동료 친사회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지도자의 권위적 행동은 선수의 동료 및 상대 반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선수의 동료 및 상대 친사회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동료 및 상대 반사회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행동과 훈련 및 지시 행동은 스포츠 도덕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도자의 지도유형은 선수들의 도덕행동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적절한 지도행동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친사회행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구조방정식모형, 학생선수, 친사회행동, 반사회행동, 스포츠인성

* changm93@naver.com

Ⅰ. 서 론

최근 스포츠 폭력 ·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스포츠가 승리지상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운동선수들이 가혹행위, 강압적인 위계질서, 암묵적인 반칙 행위 등에 노출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양윤경, 임태희, 2019).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행동을 학습한다. 가령 폭력 · 폭언 등과 같은 인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행동이나(김선욱, 양명환, 2015; 양윤경, 임태희, 2019), 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비행 행동까지 보이기도 한다(정병철, 이형일, 2014). 역설적으로 스포츠 영역에서는 인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태권도는 인성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며, 광범위한 인성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여러 구성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강명구, 임태희, 장창용, 2018; 임태희, 2015; 장창용, 윤혜성, 배준수, 2016; 정병철, 이형일, 2014).

태권도 분야의 인성 연구자들(윤혜성, 임태희, 장창용, 2017; 장창용 등, 2016)은 여러 인성 개념 가운데 선수들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덕행동(moral behavior)’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덕행동은 Bandura(1991)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도덕성 수준을 행동으로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도와 억제의 도덕성으로 설명된다. 주도하는 도덕성(proactive-morality)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한다. 반면 억제하는 도덕성(inhibitive-morality)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Bandura(1991)에 의하면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을 발현하는 것만큼이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Bandura, 1999).

이를 기반으로 Kavussanu와 Boardley(2009)는 스포츠 환경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도덕행동을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친사회행동이란 타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Eisenberg & Fabes, 1998). 부상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 승자에 대한 존중, 패자에 대한 격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장창용 등, 2016). 반대로 반사회행동이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Sage, Kavussanu, & Duda, 2006). 고의적인 반칙 · 폭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장창용 등, 2016). 이러한 스포츠 도덕행동은 동료와 상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Kavussanu & Boardley, 2009).

친사회행동과 반사회행동은 선수가 속한 환경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 규칙이나 지도자 · 부모 · 동료 등과 같은 주요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Bandura, 2004).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태권도 선수의 도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윤혜성 등(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선수의 동료 친사회행동을 증가시키고, 상대와 동료 반사회행동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선수의 상대와 동료에 대한 반사회행동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부모는 선수의 도덕행동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선수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도자 또한 선수의 도덕행동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avussanu, 2006). 선행연구(Ryan & Deci, 2000)에 따르면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친사회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Davies, Stellino, Nichols, & Colemand, 2016)에 의하면 지도자가 자율적인 성향이고 과정에 대한 가치를 지향할 경우 선수들의 친사회행동은 증가하였다. 반면 지도자가 통제적인 성향이고 결과의 가치를 지향할 경우 선수들의 반사회행동은 증가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지도자가 자율적 혹은 통제적으로 구성하는 동기 분위기(motivational climat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의 자율적인 분위기는 선수들의 주도적인 성장을 돕고 참여 과정에서 동료 혹은 상대와 갈등이 발생하여도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Kavussanu & Boardley, 2009; Kavussanu, 2006; Kavussanu, Stamp, Slade, & Ring, 2009). 반대로 지도자의 통제적인 분위기는 권위적으로 선수들의 사고와 행동에 강제성을 더함으로써 선수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 폭력 · 폭언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Deci & Ryan, 2000, 2002; Donahue et al., 2006). 특히 이 동기분위기는 선수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단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장창용, 2017)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박종태, 한남익, 2012; 정병철, 이형일, 2014; 유광희, 2018)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 훈련 및 지시 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 긍정적 보상 행동은 선수의 스포츠맨십과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위적 행동의 경우 스포츠맨십과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자율적 동기분위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적 행동유형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정병철과 이형일(2014)의 연구와 유광희(2018)의 연구처

럼 국내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특성, 환경에 따라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유형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지도유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도자의 여러 지도유형이 선수들의 친사회행동 혹은 반사회행동과 같은 도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 관계로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중학생 태권도 선수 2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 14부를 분석에서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28명(남=181, 여=47)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1학년이 80명(35.1%), 2학년이 93명(40.1%), 그리고 3학년이 55명(24.1%)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1	79.4
	여	47	20.6
학년	1학년	80	35.1
	2학년	93	40.1
	3학년	55	24.1
운동경력	2년 이하	79	34.6
	5년 이하	84	36.8
	8년 이상	65	28.5
합계		228	100

2. 측정도구

1) 스포츠 코치 행동유형 척도

지도자의 지도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Chelladurai와 Saleh(1980)가 개발하고 한태환, 김기환 및 심상신(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스포츠 지도자 행동유형 척도(Leadership Scale for Sports, LSS)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도자의 행동유형을 크게 훈련 및 지시 행동(5문항), 민주적 행동(4문항), 사회적지지 행동(5문항), 권위적 행동(4문항), 그리고 긍정적 보상 행동(4문항)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총 5요인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2) 스포츠 도덕행동

스포츠 도덕행동 척도는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장창용 등(2016)이 타당화하였으며, 윤혜성 등(2017)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팀 동료와 상대에 대한 친사회 및 반사회행동을 측정한다. 즉 동료 친사회행동(4문항), 상대 친사회행동(3문항), 동료 반사회행동(5문항), 그리고 상대 반사회행동(8문항)으로 총 4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 수는 총 20개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제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측정 문항의 의미가 구성 요인의 의미에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모형적합도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하여 문항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셋째, 경로계수의 유의수준 및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도유형 5문항과 스포츠 도덕행동에서 3문항이 제거되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이학식, 임지훈, 2017; 홍세희, 2017; Kline, 2015)을 기반으로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지도행동 척도는 χ^2/df=1.731, CFI=.949, TLI=.938, RMSEA=.060, SRMR=.046으로 나타났고 도덕행동 척도는 χ^2/df= 2.266, CFI=.934, TLI=.921, RMSEA=.079, SRMR=.068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적합도 지수들의 기준치인 χ^2/df는 3 이하, CFI와 TLI는 .9 이상, RMSEA와 SRMR은 .08 이하(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Kline, 2015)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모형적합도

Model	x^2	*df*	CMIN/*df* (x^2/*df*)	CFI	TLI	RMSEA	SRMR
지도유형	216.419 (p 〈 .000)	125	1.731	.949	.938	.060 (90% CI = .046, .073)	.046
도덕행동	256.061 (p 〈 .000)	113	2.266	.934	.921	.079 (90% CI = .066, .092)	.068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회귀계수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척도의 모든 측정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신뢰도는 지도행동 척도의 경우 α=.625에서 .871의 범위로, 도덕행동 척도의 경우 α=.675에서 .931의 범위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 중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ence extracted)의 범위는 지도행동의 경우 .731~.924였고 스포츠 도덕행동은 .657~.932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의 범위는 지도행동 .910~.978, 스포츠 도덕행동 .845~.988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분산추출 .5이상, 개념신뢰도 .7이상이라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이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따라서 이 연구의 지도행동 척도와 도덕행동 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factor	B	β	S.E.	t	α	factor	B	β	S.E.	t	α
훈련지시1	1.000	.630	-	-		동료친사회2	1.000	.687	-	-	
훈련지시2	.986	.686	.125	7.857***	.786	동료친사회3	1.751	.981	.142	12.343***	.890
훈련지시3	1.098	.710	.136	8.053***		동료친사회4	1.622	.906	.134	12.139***	
훈련지시5	1.242	.743	.149	8.311***		상대친사회1	1.000	.461	-	-	
민주1	1.000	.786	-	-		상대친사회2	1.984	.821	.384	5.164***	.675
민주2	.968	.866	.071	13.700***	.871	상대친사회3	1.666	.666	.310	5.375***	
민주3	.991	.888	.070	14.120***		동료반사회1	1.000	.668	-	-	
민주4	.934	.679	.092	10.146***		동료반사회2	1.187	.784	.125	9.494***	
권위1	1.000	.757	-	-		동료반사회3	1.437	.808	.148	9.704***	.836
권위2	.933	.853	.085	11.023***	.826	동료반사회4	1.006	.777	.107	9.421***	
권위3	.747	.778	.071	10.507***		동료반사회5	.968	.564	.135	7.164***	
사회1	1.000	.397	-	-		상대반사회1	1.000	.863	-	-	
사회2	1.374	.828	.243	5.644***	.767	상대반사회2	1.004	.886	.058	17.324***	
사회3	1.706	.924	.297	5.752***		상대반사회4	.972	.893	.055	17.618***	.931
사회4	1.432	.703	.266	5.393***		상대반사회5	1.148	.819	.077	15.010***	
긍정1	1.000	.802	-	-		상대반사회6	.916	.839	.058	15.679***	
긍정2	.449	.515	.072	6.257***	.625	상대반사회8	.728	.708	.061	11.901***	
긍정3	.732	.504	.119	6.135***							

$^{***}p<.001$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버전과 AMOS 23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에서는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이때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댓값 기준으로 왜도 2이하, 첨도 8이하일 때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5).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유형 하위요인과 스포츠 도덕행동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계수는 Pearson's r를 사용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지도유형과 스포츠 도덕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적합도 지수는 CMIN/*df* 값, CFI, TLI, RMSEA, 그리고 SRMR 값이었다. 각 지수들의 기준치는 김주환 등(2009)과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치를 기반으로 해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부분에 제시된 수치와 동일하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기술통계

각 문항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평균의 범위는 1.27부터 4.73까지였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486부터 1.844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는 -1.524부터 1.844의 범위를 지니고 있었고 첨도는 -.867부터 4.806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분포 조건인 왜도 절댓값 2이하, 첨도 절댓값 8이하를 충족하는 것이다(Kline, 2015).

2. 상관관계

지도행동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과 도덕행동의 네 가지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도행동과 도덕행동의 하위요인 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과 동료 반사회행동의 상관계수(r)가 -.472(p<.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보상 행동과 동료 친사회행동이 .459(p<.01), 사회적지지와 동료 친사회행동 .443(p<.01), 긍정적 보상 행동과 동료 반사회행동 -.435(p<.01), 민주적 행동과 상대 친사회행동 .429(p<.01) 등의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유일하게 권위적 행동과 상대 친사회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지도유형과 스포츠 도덕행동 간의 상관관계

	1 훈련지시	2 민주	3 권위	4 사회	5 긍정	6 동료친사회	7 상대친사회	8 동료반사회	9 상대반사회
1									
2	.600**								
3	-.368**	-.463**							
4	.526**	.630**	-.446**						
5	.392**	.560**	-.216**	.424**					
6	.427**	.429**	-.267**	.443**	.459**				
7	.159*	.195**	-.003	.188**	.321**	.349**			
8	-.368**	-.472**	.378**	-.391**	-.435**	-.418**	-.183**		
9	-.280**	-.210**	.206**	-.318**	-.239**	-.411**	-.147*	.528**	

*$p<.05$, **$p<.01$

3. 구조모형 검증

1) 모형적합도

지도행동유형과 도덕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는 χ^2/df, CFI, TLI, RMSEA, 그리고 SRMR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 각각의 기준은 χ^2/df 3 이하, CFI와 TLI .9이상, RMSEA와 SRMR .08이하로 하였다(김주환 등, 2009; Kline, 2015).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χ^2/df 값은 =1.711, CFI .910, TLI .899, RMSEA .059, SRMR .070이었다.

표 5. 모형적합도

Model	x^2	*df*	CMIN/*df* (x^2/*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906.992 (p < .000)	530	1.711	.910	.899	.059 (90% CI = .052, .066)	.070

2) 경로계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첫째, 민주적 행동은 동료 친사회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682, p〈.05) 상대 친사회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료 반사회행동(β=.819, p〈.05)과 상대 반사회행동(β=1.397, p〈.001)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권위적 행동은 동료 친사회행동과 상대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료 반사회행동(β=.461, p〈.001)과 상대 반사회행동(β=.346, p〈.01)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긍정적 보상 행동은 친사회 및 반사회 도덕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긍정적 보상 행동은 동료 친사회행동에 β=.919(p〈.001), 상대 친사회행동에 β=.747(p〈.01), 동료 반사회행동에는 β=-1.313(p〈.001), 그리고 상대 반사회행동에는 β=-1.304(p〈.001)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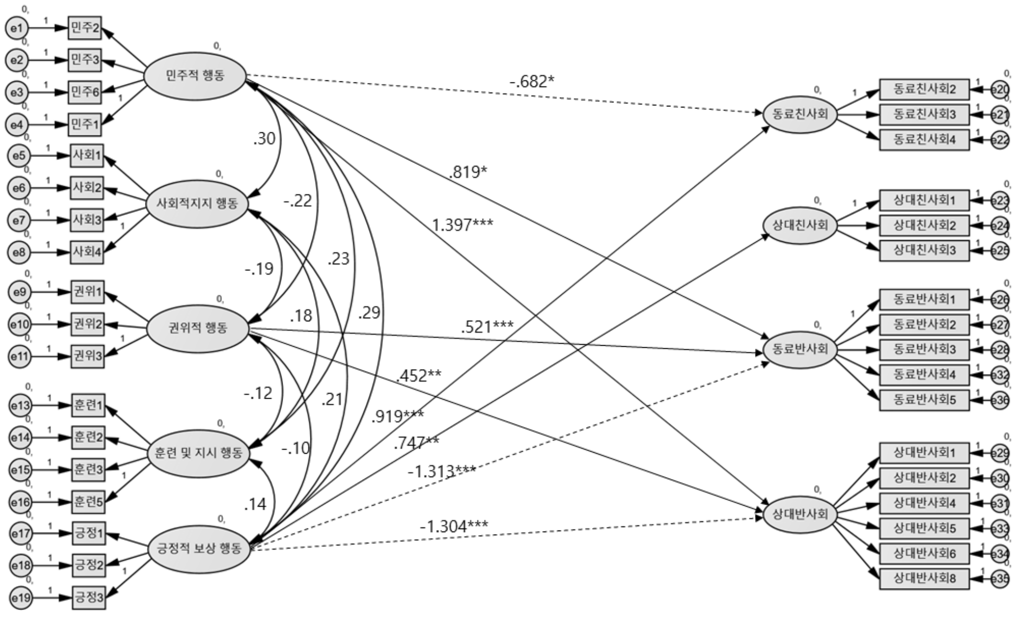
넷째, 사회적지지 행동과 훈련 및 지시 행동은 스포츠 도덕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6. 경로계수 결과

종속		독립	B	β	S.E.	t
동료친사회	←	훈련지시	.341	.323	.213	1.601
상대친사회	←	훈련지시	.090	.081	.233	.385
동료반사회	←	훈련지시	-.236	-.180	.302	-.780
상대반사회	←	훈련지시	-.444	-.392	.284	-1.564
동료친사회	←	민주	-.436	-.682	.176	-2.474*
상대친사회	←	민주	-.244	-.364	.193	-1.264
동료반사회	←	민주	.649	.819	.257	2.521*
상대반사회	←	민주	.958	1.397	.248	3.862***
동료친사회	←	권위	-.110	-.154	.085	-1.298
상대친사회	←	권위	.084	.113	.095	.889
동료반사회	←	권위	.461	.521	.131	3.511***
상대반사회	←	권위	.346	.452	.115	2.996**

종속		독립	B	β	S.E.	t
동료친사회	←	사회	-.036	-.049	.119	-.302
상대친사회	←	사회	-.066	-.086	.132	-.500
동료반사회	←	사회	.241	.266	.176	1.373
상대반사회	←	사회	.061	.078	.158	.389
동료친사회	←	긍정	.818	.919	.235	3.485***
상대친사회	←	긍정	.698	.747	.264	2.643**
동료반사회	←	긍정	-1.450	-1.313	.381	-3.807***
상대반사회	←	긍정	-1.247	-1.304	.327	-3.811***

*p<.05, **p<.01, ***p<.001



Note. 모형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β)임
점선은 부적영향, 실선은 정적영향임

그림 1. 연구모형

Ⅳ. 논 의

이 연구는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선수들의 도덕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중학교 태권도 선수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선수의 동료 친사회행동에 부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고, 동료와 상대에 대한 반사회행동에는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도자의 민주적인 행동이 선수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친사회행동을 유발한다는 송용관, 천승현과 김승재(201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들은 지도자로부터 자율성 지지와 상호 소통방식을 통해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삼가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Garm(2016), Rutten 등(2008)도 지도자가 자율적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면 팀에 대한 헌신과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반면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병철과 이형일(2014)은 지도자의 민주적인 행동이 강할수록 선수들의 책임감과 정의감이 낮다고 하였고, 유광희(2018)는 지도자의 민주적인 행동이 선수의 상대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종목의 특성에 따라 선수들이 선호하는 지도유형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록경기 종목이 지도자의 민주적인 행동을 선호하지만 구기와 투기종목의 경우 권위적인 행동을 선호한다는 김병현 등(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엘리트 스포츠는 입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과 입시에 대비해야 하는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선수에게 민주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선수는 시합에서의 생존과 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반사회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권위적인 행동은 선수의 동료와 상대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광희(2018)의 연구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권위적인 행동이 선수의 동료와 상대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지도자의 통제적인 지도 방식이 상대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에 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및 양명환(201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통제적인 지도행동 방식을 선호하는 지도자는 대부분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훈련이나 경기 중 선수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더라도 묵인하는 경향이 강하다(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및 김보람, 2016; 천승현 등, 2017; Cheon, Reeve, & Ntoumanis, 2018; Hodge & Lonsdale, 2011). 이와 같이 훈련 환경이 성과위주로 조성될 경우 선수들은 자신의 동료보다 더 많은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적 언어와 비판 같은 올바르지 못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Kavussanu & Roberts, 2001). 이처럼 훈련 분위기는 선수의 도덕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도자의 권위적인 행동은 선수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태권도 지도자의 긍정적인 보상 행동은 선수의 동료와 상대 친사회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료와 상대 반사회행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의 긍정적인 보상행동이 선수의 도덕적인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병철과 이형일(201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하지만 지도자의 긍정적인 보상 행동이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유광희(201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더불어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칭찬 · 모델링 · 점수제도와 같은 교수전략을 사용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Giebink와 McKenzie(198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는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이 학습자에게 긍정적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여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강화하여 내면화되도록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강혜정과 조순묵(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태와 김정혜(2019)는 학생선수의 인성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지도자의 일방적인 지시 · 비하발언 · 직설적인 언행 등과 같은 지도자의 부정적인 지도 행동이 인성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선수도 인격체로서 존중과 신뢰와 같은 심리적 욕구 충족이 중요함을 뜻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가 도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덕행동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선수의 욕구 · 동기 ·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태권도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행동과 훈련 및 지시 행동은 선수의 모든 스포츠 도덕행동의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유광희(2018)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행동이 선수의 동료에 대한 친사회행동을 증가시켰고, 박종태와 한남익(2012)의 연구에서는 상대존중 · 동료배려 · 판정존중 등이 선수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받을수록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병철과 이형일(2014)은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행동과 훈련 및 지시 행동이 선수의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도덕적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선수가 자신의 위치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수록 집단 내에서 의무를 성실히 해내며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도유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영인과 김용수(2007)는 대학 태권도 선수의 사회성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 책임감이 높은 선수일수록 모든 지도유형을 고루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의 최상수행이 개인의 특성과 선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개인별 최상수행 지역 이론(IZOF; Individual Zone of Optimal Function)과 유사하다(임태희, 장창용, 2016). 선수의 성장과 발달 또한 선수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 동기와 목표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선수의 스포츠 도덕행동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한 가지 지도유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도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선수는 긍정적인 스포츠 도덕행동을 개발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선수들의 도덕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선수의 동료 친사회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료 반사회 및 상대 반사회행동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태권도 지도자의 권위적 행동은 선수의 동료 및 상대 반사회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태권도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선수의 동료와 상대 친사회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료와 상대 반사회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태권도 지도자의 사회적지지 행동과 훈련 및 지시 행동은 선수의 모든 스포츠 도덕행동 하위요인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합하면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유형은 선수의 스포츠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선수와 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선수를 지도함으로써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고 반사회행동을 예방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지도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민주적 지도행동이 선수들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와 상반된다. 그러나 국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측정도구의 문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 민주적 지도행동을 과연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유형은 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지도행동이기 때문에 실제 지도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지도자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선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 자료들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이나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지도자의 어떤 지도행동이 선수들의 친사회행동을 높이고 반사회행동을 감소시키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연구에서 민주적인 지도행동이 선수들의 반사회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도자가 어떤 민주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명구, 임태희, 장창용(2018). 케어링 및 동기 분위기는 태권도 선수들의 도덕행동을 예측하는가?. **국기원 태권도연구, 9**(1), 77-93.

강혜정, 조순묵(2012). 초등학생의 인지적· 행동적 도덕성 발달을 위한 체육교수전략의 적용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71-94.

김병현, 이한규, 김준성, 장윤진, 이종영, 하형주(1990). 경기종목 특성에 따른 코치의 지도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28,** 90-97.

김선욱, 양명환(2015).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행동과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7**(4), 25-35.

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2016). 코칭 방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친사회적, 반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8**(2), 41-61.

김영인, 김용수(2007). 대학 태권도 선수의 사회성요인과 코치의 다차원적 리더십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71-90.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지태, 김정혜(2019). 중학교 축구선수의 인성발달 저해요인 및 교육요인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231-241.

박종태, 한남익(2012). 초등학교 축구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스포츠맨십 및 인성과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4**(3), 24-33.

송용관, 천승현, 김승재(2018). 지도자의 상호소통방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정신력, 집단효능감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407-424.

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김보람(2016).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소진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69-88.

양윤경, 임태희(2019). 스포츠 폭력으로 발생한 선수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해결중심 상담 기반 자기주장훈련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0**(2), 423-440.

유광희(2018). **태권도 지도자의 지도유형이 선수들의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윤혜성, 임태희, 장창용(2017). 초 · 중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포츠 도덕행동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8**(3), 61-70.

이학식, 임지훈(2017).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24.** 서울: 집현재

임태희(2015). 태권도인성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수련 효과.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71-95.

임태희, 장창용(2016). **멘탈붕괴를 이기는 멘탈코칭.** 서울: 애니빅.

장창용(2017).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구조

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8**(2), 1-11.

장창용, 윤혜성, 배준수(2016). 스포츠 도덕행동 척도 타당성 검증: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국기원 태권도연구,** 7(4), 215-230.

정병철, 이형일(2014).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선수들의 스포츠 경쟁상황에서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9**(4), 81-92.

천승현, 김지현, 유경은, 김승재, 송용관(2017). 체육교사와 동료들에 의해 조성된 동기분위기가 학습자의 동기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1), 53-70.

한태환, 김기환, 심상신(2012).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선수만족도 및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6,** 21-38.

홍세희(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Handbook of personality, 2,* 154-196.

Bandura, A. (2004). Selective exercise of moral agency. In Nurturing morality (pp. 37-57). Springer, Boston, MA.

Chelladurai, P., & Saleh, S. D. (1980). Dimensions of leader behavior in sports: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34-45.

Cheon, S. H., Reeve, J., & Ntoumanis, N. (2018). A needs-supportive intervention to help PE teachers enhance students' prosocial behavior and diminish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5,* 74-88.

Davies, M. J., Babkes Stellino, M., Nichols, B. A., & Coleman, L. M. (2016). Other-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and youth hockey players' good and poor sport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8*(1), 78-96.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Donahue, E. G., Miquelon, P., Valois, P., Goulet, C., Buist, A., & Vallerand, R. J. (2006). A motivational model of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 use in elit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4), 511-520.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701–778).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Garn, A. (2016). Perceived teammate acceptance and sport commitment in adolescent female volleyball players. *The Sport Psychologist, 30*(1), 30-39.

Giebink, M. P., & McKenzie, T. L. (1985). Teaching sportsmanship in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An analysis of interventions and generalization effect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3), 167-177.

Hodge, K., & Lonsdale, C. (2011).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coaching style, autonomous vs.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4), 527-547.

Kavussanu, M. (2006). Motivational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foo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06), 575-588.

Kavussanu, M., & Boardley, I. D. (2009).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1*(1), 97-117.

Kavussanu, M., & Roberts, G. C. (2001). Moral functioning in sport: An achievement goal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3*(1), 37-54.

Kavussanu, M., Stamp, R., Slade, G., & Ring, C. (2009). Observed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soccer play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1*(1), 62-76.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Rutten, E. A., Deković, M., Stams, G. J. J., Schuengel, C., Hoeksma, J. B., & Biesta, G. J. (2008). On-and off-field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soccer players: A multileve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1*(3), 371-387.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Sage, L., Kavussanu, M., & Duda, J. (2006). Goal orientations and moral identity as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4*(5), 455-466.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aching style and sport moral behavior of middle school Taekwondo athletes

Lim, Tae-Hee (Yongin University, Professor) · Lee, Chang-Min (Yongin University, master's course) · Bae, Jun-Su (Yongin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ang, Yun-Kyung (Ga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ach's coaching styles and sport moral behavior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Participants were 242 middle school Taekwondo athletes who participated in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but the data of 228 athletes (male=181, female=47) were used for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mocratic coaching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team and opponent anti-social behavior, and had a negative effect on team pro-social behavior. Second, autocratic coaching behavior positively influenced on team and opponent anti-social behavior of athletes. Third, positive feedback behavior positively affected team and opponent pro-social behavior and negatively affected team and opponent anti-social behavior. Fourth, social support and training/instruction behavior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ll sub-factors of sport moral behavior. In conclusion, because the coaching styles mostly influence on the moral behavior of athletes, coaches need to promote athlete's pro-social behavior by taking appropriate behavior.

Keywords: SEM, student-athletes, sport character, pro-social behavior, anti-social behavior

논문투고일: 2019. 10. 31.
논문심사일: 2019. 11. 07.
심사완료일: 2019. 12. 01.